

## 「박사들의 여행」에 나타난 역설적 신앙

김경철(경북대 박사)

엘리엇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구속적 시간 개념으로서<sup>1)</sup> 구속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 흘리신 피값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sup>2)</sup>. 특히 『에어리얼 시편들』 가운데 「시므온을 위한 노래」와 「박사들의 여행」 두 편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창작을 하였으나 시인은 성경의 내용과는 다르게 시를 창작함으로써 자신의 역설적 기교를 십분 발휘하였다<sup>3)</sup>. 이 두편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에어리얼 시편들』의 첫 두 부분을 출판하고 난 다음 1928년에 이 시 「시므온을 위한 노래」가 출판된다. 에어리얼(Ariel)은 셰익스피어 작품 『폭풍우』(*The Tempest*)에 등장하는 변덕스러운 요정을 지칭한다.

『에어리얼 시편들』에 속하는 4편의 시는 여러 각도에서 시간과 육체 그리고 이 일상적인 세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을 그리면서(Murphy 51),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이 시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보편적 속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 시 역시 역사를 구속적 역사로 파악하고 있다. 이 시는 어린 예수를 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기뻐하며 그 어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 “시므온의 노래”이고, 신학적으로는 “nunc dimittis(시므온의 찬송의 노래)”라고 불린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시므온의 노래라고 불러야 마땅하지만, 엘리엇은 이를 「시므온을 위한 노래」로 변형시키고 있다. 존 티머먼(John H. Timmerman)은 이 시가 자체의 시적 구조를 통하여 또 다른 종류의 “영적 순열(spiritual permutation)을 추적”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처럼(117), 시에 묘사된 시므온의 인생 여정은 영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시인 엘리엇의 인생 여정과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전종봉(248-50)은 「번트 노턴」의 과거·현재·미래가 혼합된 시간관 역시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의 시적 형상화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했듯이 베르그송의 철학은 신비주의와 접목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 약동 개념을 신과 관련시키고자 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엘리엇의 시간관은 본 논문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구속적 시간관으로 보아야 한다.

엘리엇의 역사 개념이 영적이고 구속사적 개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시는 「박사들의 여행」이다. 이 시 역시 「시므온을 위한 노래」의 경우처럼 역사를 구속적 역사로 파악하는 엘리엇의 역사관이 반영된 시이다.

이 시는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으로서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 동쪽에서 머나먼 길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신앙인들의 이야기이다. 굳건한 신앙이 없었다면 이런 여정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매우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시에 묘사된 박사들의 모습은 독자들의 기대와 충돌한다.

「박사들의 여행」에는 환멸의 철학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환멸의 철학이란 “삶이 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죽음에 기대는 것”(Gish 58)을 말하는데, 이 철학은 엘리엇이 개종을

1)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엘리엇의 시간관을 구속적인 시간으로 정리하였다

2)

3) Eliot

선언하던 해에 발표한 「박사들의 여행」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개종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고 돌아서는 일로서 어쩌면 죽음과도 같은 사건이었을 것이다. 개종의 어려움은 별을 따라 떠나면 길을 떠나는 여행의 혹독함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시는 1622년 앤드루스(Andrews) 주교가 그리스도 탄생 기념 설교 시 사용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시작한다.

‘           우리 참 추웠었지  
여행하기에, 이렇게 긴 여행을 하기엔  
하필 일 년 중에서도 가장 나쁜 때였지.  
길은 깊고 날씨는 살을 에고,  
바로 겨울의 죽음이었지.’

‘A cold coming we had of it,  
Just the worst time of the year  
For a journey, and such a long journey:  
The ways deep and the weather sharp,  
The very dead of winter.’ (CPP 103)

박사들의 기나긴 여정이 1년 중 가장 날씨가 혹독하던, 한 겨울철에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여행의 혹독함과 박사들의 단호함을 암시하고 있다. 엘리엇은 여행의 혹독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의 내용을 성경 이야기의 전개형식과는 달리, 여행자가 귀국한 후 자신의 여정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단호하게 여행을 떠난 박사들은 곧이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들이 떠나온 과거의 아늑하고 육욕적인 삶을 아쉬워한다(Gish 60). 박사들의 여정은 앞을 향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와 반대로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떠나온 과거를 아쉬워한다.

우리는 가끔 비탈 위의 여름 궁전 같은 여름 별장들, 테라스들,  
비단옷 입은 여아들이 과즙을 나르는 것 등을  
생각하고 못내 아쉬워했다.  
그때 낙타 부리는 마부들은 욱하고 투덜대고,  
술과 여자를 찾아 달아났었고,  
그리고 밤불은 꺼지고, 유숙할 곳도 없었고,  
도시마다 적의를 가졌고, 고을마다 매정했고,  
마을들은 더러웠고, 비싼 요금을 요구했었다.  
그 여행 고생스러웠고,  
결국 틈틈이 돌아가면서  
차라리 밤새껏 여행하기를 택했었다.

There were times we regretted

The summer palaces on slopes, the terraces,  
 And the silken girls bringing sherbet.  
 Then the camel men cursing and grumbling  
 And running away, and wanting their liquor and women,  
 And the night-fires going out, and the lack of shelters,  
 And the cities hostile and the towns are unfriendly  
 And the villages dirty and charging high prices:  
 A hard time we had of it.  
 At the end we preferred to travel all night,  
 Sleeping in snatches, (CPP 103)

그림 같은 여름 궁전 그리고 셰르벳을 나르던 실크 아가씨들, 술이 있고 여인이 있는 그 때보다 지금은 가는 곳마다 불친절하고 더럽고 바가지를 씌우고 심지어 이제부터는 가끔 선잠을 자면서 이동해야 하는,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시에 빈번히 암시된 회의와 갈등은 개종 직후의 엘리엇 자신의 모습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1932년 발표한 「존 포드」(“John Ford”) 평론에서 엘리엇은 시극에서 등장인물이 가장 극적으로 창작되는 것은 시인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조화를 위한 투쟁(struggle for harmony)”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E 196). 엘리엇은 자신의 주장처럼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자신의 투쟁을 재현하기 위하여 이 시의 박사들이 내뱉는 극적 독백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Jain 232).

이제 멀고 먼 나라에서 모든 어려운 조건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한 아이의 탄생을 찾아 나선 박사들의 목표는 “다 어리석은 짓”이고 긴 여정이 결국 무위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애매함이 강하게 부각된다.

목소리가 우리 귀에 대고 노래하면서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이 전부 헛짓이라고.

With the voices singing in our ears, saying  
 That this was all folly. (CPP 103)

「박사들의 여행」역시 특정한 물리적인 여행이라기보다는 “내면을 향한 영적인 추구”에 관심이 있는 만큼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엘리엇은 당시 프랑스 시인 생-존 퍼스(Saint-John Perse)의 『아나바시스』(*Anabasis*)를 영어로 번역한 바 있는데 퍼스로부터 엘리엇이 받은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sup>4)</sup> 이 시는 그리스의 역사가 크세노폰(Xenophon)이 키루스(Cyrus) 2세를 위해 싸운 용병들의 행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퍼스는 자신의 시에서 군

4) 엘리엇은 뒷날 이 책을 번역한 이후 쓴 시에서 퍼스의 영향이 아마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Bush 재인용 259). 그리고 「머리나」를 제외한 3편 시의 시구나 심상에서 퍼스의 영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모든 시에도 이 시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인들의 행군 의미를 역사적인 관점보다는 영적인 데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엘리엇의 말처럼 이 시에는 외부세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언급도 없다. 「박사들의 여행」이 “내면을 향한 영적인 추구”에 관심이 있으므로 엘리엇에게 있어서 역사는 그 자체보다 역사가 제시하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다. 어쩌면 이 시의 “외부세계에 대한 지칭은 불확정적”일지 모른다 (Jain 233). 퍼스가 구체적인 섬세함에 서사적 불확정성과 주술적 리듬을 통하여 “의식이 파악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언저리에서 매우 암시적이고 신비적인 효과”를 이루려고 한 것처럼 엘리엇도 자신의 시에서 같은 것을 추구하였다(Bush 재인용 258).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자체가 충분한 목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엘리엇의 박사들은 그들이 가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그들은 컷가로 이 “모든 것이 전부 어리석은 짓(this was all folly)”(CPP 103)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시에는 무수한 성경적 심상들이 나타나 이 심상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한 갈보리 언덕의 이미지인 세 그루의 나무가 그들의 뇌리에 등장하고 비록 늙었고 화자로부터 달아나기는 하지만 그 백마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가 탄 말을 암시하고, 상인방 위에 걸쳐져 있는 포도나무 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한 유월절 사건을 회상시켜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사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집트의 장자를 전부 살해하는 사명을 받은 천사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서 이집트를 떠났다. 「박사들의 여행」의 군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뽑던 처형장의 그 군인들을 암시하고 은전은 유다의 배신을 회상시켜주고 있다.

시의 전체 내용은 “다가올 고뇌”를 제시하고 있다. 구약의 “유월절 속죄양을 계시록의 흰 말”로 대체시킴으로써 옛 시대와 재림을 성육신과 결부시키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 이후 인간 세상의 모든 시간은 성육신 사건과의 관련 속에서 존재하고 이제 이 시는 그 성육신의 의미에 집중하고 있다는 기쉬(Gish)의 말은 이 시에 나타난 시간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62). 이 시에서 독자는 개종 직후 엘리엇의 모습을 일견하게 되는데 엘리엇에게 있어서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역사가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하고,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성육신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구속적인 역사이다.

새벽녘에 우리는 내려왔지 초목 냄새 풍기는,  
 설선(雪線) 아래의, 물기 있는 온화한 골짜기로.  
 흐르는 시냇물과 어둠을 때리는 물방앗간,  
 그리고 나지막한 하늘에 나무 세 그루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늙은 백마가 초원에 꺾충꺾충 뛰며 사라졌었지,  
 그 후 우리는 상인방 위에 포도 잎사귀를 단 주막집으로 왔지,  
 여섯 놈이 문을 열어놓고 은화를 걸고 주사위노름을 하며  
 발로는 텅 빈 포도주 가죽 부대를 차고 있었지.

Then at dawn we came down to a temperate valley,  
 Wet, below the snow line, smelling of vegetation;  
 With a running stream and a water-mill beating the darkness,  
 And three trees on the low sky,  
 And an old white horse galloped away in the meadow.  
 Then we came to a tavern with vine-leaves over the lintel,  
 Six hands at an open door dicing for pieces of silver,  
 And feet kick the empty wine-skins. (*CPP* 103)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분의 필연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만 머나먼 길을 걸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박사들에게 그 의미는 애매하고 어둡게 다가온다. 그 먼 길을 걸어온 목적이 점점 희미해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불확실하고 또한 거기에 어떤 성취감도 없다.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하여 출발한 여정이지만 탄생은 강조되지 않고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암시되고 있다.

아무 소식이 없어 우리는 계속 나아가  
 저녁에 바로 정각에 도착하여  
 그곳을 찾아냈어. 그게 (당신이 말하겠지) 만족스러웠다고.

But there was no information, and so we continued  
 And arrived at evening, not a moment too soon  
 Finding the place; it was (you may say) satisfactory. (*CPP* 103)

여기서 독자들은 엘리엇이 의도적으로 중요한 “신적 사건이자 초자연적 주제를 일상화”하는 것을 보게 된다(Johnson 70). 이 시와 대비되는 「게론티온」에는 강렬한 그리스도의 심상이 등장하지만, 그와 대조되게 「박사들의 여행」에서는 명징한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히려 일상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엘리엇의 역설적 수사학이 여실히 나타난다. 신앙의 부재를 다루는 시에서는 강렬한 신앙적 심상이 등장하고 그 대신 제목에서부터 신앙을 표방하는 이 시에서는 도리어 신앙의 하향화가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시의 제목과는 달리 이 시는 생명보다는 죽음이 더 강조되고 있다. 시는 이야기를 진전시킬 듯 보이지만 역설적인 것은 시가 진행될수록 시는 가상의 표면 위를 헤맬 뿐이고 이야기는 더는 진전되지 않고 이야기 대신 도리어 비인격적인 요소들만 나열되고 결국 신적 사건의 그 자리에 도착하지만, 실제인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무 실체 없이 추상화되어버린다. 이 시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것은 탄생과 죽음이고, 결국 이 시는 시인의 개종 이후의 작품으로서 이 시는 기독교의 신적 탄생을 발견하려는 강렬한 추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죽음이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Johnson 68-70).

모든 것은, 내가 기억하기엔, 오래전 일이었어,  
 그리고 나는 다시 그런 여행을 하고 싶어, 하지만 명심하라  
 이것을 명심하라  
 이것을. 우리가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  
 탄생이었던가, 죽음이었던가? 탄생이 있었지, 분명히,  
 우리는 증거가 있고 전혀 의심치 않아, 나는 탄생과 죽음을 보았어. . .  
 나는 또 한 번 죽었으면 싶구나.

All this was a long time ago, I remember,  
 And I would do it again, but set down  
 This set down  
 This: were we led all that way for  
 Birth or Death? There was a Birth, certainly.  
 We had evidence and no doubt. I had seen birth and death,. . . .  
 I should be glad of another dearth. (CPP 104)

이 시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탄생보다 더 많이 등장함으로써 결국 이 시는 “죽음에 대한 욕망”으로 결론지어지면서 이 시가 다루는 배경인 기독교 기원에 대한 “어떠한 문화적, 영적, 또는 종교적 의미”도 제시하지 않는다. 영적 사랑(spiritual eros)에 대한 표현을 기대하는 독자는 시적 자아가 느끼는 영적 죽음(spiritual thanatos)과 만난다. 이 “죽음의 소망”은 『황무지』 서두에 등장하는 쿠마에(Cumae) 무녀(巫女)의 소원과 연결되고, 엘리엇의 또 다른 시 「엘리엇 씨의 주일 아침 예배」(“Mr. Eliot's Sunday Morning Service”)와 연결된다. 이 시가 교회가 복음 메시지를 세속화하는 것에 반항하는 시의 분위기 속의 “불신자의 신앙”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박사들의 여행」은 신적 현현을 세속화시킴으로써 “신자의 불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는 존슨의 말은 타견이다(Johnson 70-71). 이리하여 「게론티온」과는 달리 이 시에서는 엘리엇이 탄생과 죽음을 동일시함으로써 패러다임의 한 축인 탄생이 취소된다.

그 결과 “나는 탄생과 죽음을 보았다 / 그러나 그들이 다르다고 생각했었다(I had seen birth and death / But had thought they were different)”(CPP 104)는 표현을 통해 이 탄생즉 생명과 죽음이 다르지 않음을 암시함으로써 이 차이의 생략은 “감각의 극단적 생략”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의미론적 림보”를 구성한다. 엘리엇은 이 시에서 하듯이 패러다임적인 대치어들의 차이를 허무는 일을 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다는 존슨의 말은 상당히 정확하다(Johnson 71). 이 차이의 해소는 엘리엇 시에 흔히 등장하는 영적 생명에 이르게 하는 “부정의 길(Via Negativa)”로서의 육체적 죽음과 일상적인 죽음 사이에 어떤 차이도 더는 나타나지 않는 경지를 이룬다.

앤드루즈의 설교에 등장하는 박사들의 여정의 끝은 아기 예수에게 예배하는 목적에 이르러 평안을 누리지만 엘리엇은 다시 한 번 의미를 전복시킴으로써 안식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감”을 제시한다. 엘리엇은 “옛 신앙을 부정하면서도 결코 성육신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에 인한 소외감, 그리고 죽음을 통한 편안을 갈망”하는 박사들의 마음 상태를 제시한다. 이 소외감은 심지어 시의 화자인 박사와 시인 간의 좁혀지지 않는 차이를 만들고 있다(Jain 232).

증거가 있고, 의심의 여지가 없고, 탄생과 죽음을 보았지만,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었다. 그 탄생은  
그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처럼 우리에게는 힘들고 쓰렸으며,  
우리는 우리 처소로 돌아갔으며, 이 왕국들은,  
그러나 더 이상은 이곳에서 편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신들에게 매달려있는 이방인들의 옛 섭리로  
또 다른 죽음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We had evidence and no doubt, I had seen birth and death,  
But had thought they were different: the Birth was  
Hard and bitter agony for us, like Death, our death.  
We returned to our places, these Kingdoms,  
But no longer at ease here, in the old dispensation,  
With an alien people clutching their gods,  
I should be glad of another death. (*CPP* 104)

결국, 「박사들의 여행」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비틀어 제목과는 달리 신앙인의 불신앙을 토로하는 시가 된다. 결국, 생명을 찾아가는 신앙인의 여정이 죽음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엘리엇은 성경 이야기를 빌려 이를 자신의 시에서 신앙인의 여정이 아닌 신앙인의 불신앙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간 역사적 사건을 역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역사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역사의 영적인 의미를 바로 되새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를 누누이 강조한 엘리엇의 역사관은 일반적인 수평적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구속적 역사이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인간사에 벌어지는 역사란 수평적인 의미보다는 도리어 이를 초월하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서 엘리엇이 그려내는 역사는 구속적 역사이다.